풀어쓰기한글의 타당성 고찰

- 주시경, 김두봉, 최현배의 풀어쓰기 안을 중심으로 -

구본영, 극동대학교 시각디자인과 강사
seong007sk@hanmail.net

한욱현, 숭의여자대학 시각디자인과
whhan@sewc.ac.kr

Appropriateness of Writing Hangul Letters Making A Syllable on A Line

- Focused on Agument of Shikyeong Joo, Doobong Kim, and Hyunbae Chwe -

Koo Bon Young, Lecture of Far East University
Han Wook Hyun, Professor of Soongeui Women;s College

목 차

1. 서 론
1-1. 연구배경 및 목적
1-2. 용어의 정의

2. 풀어쓰기한글관련 주장
2-1. 주시경의 풀어쓰기 한글
2-2. 김두봉의 풀어쓰기 한글
2-3. 최현배의 풀어쓰기 한글

3. 풀어쓰기한글의 문제점
3-1. 한글의 정체성 측면
3-2. 쪽자의 묶음과 문장방향
3-3. 문자 활용의 기술적 측면
3-4. 문자로서의 기능적 측면

4. 결 론

참고문헌

Keyword
한글(hangul), 풀어쓰기(word-based writing), 모아쓰기(syllable-based writing)

Abstract

This study is one of steps to find ideal structure of hangul, Korean Alphabetic Characters. Written in hangul, several letters to express a syllable has been written in a unit since the creation of hangul. (I call this writing system syllable-based writing.) Yet, Shikyeong Joo proposed to write all letters to express a word on a line like English in 1908 and some scholars have agreed with him. (I call this writing system word-based writing.) They insisted that word-based writing has lots of benefits. If all letters a word has are written on a line, it will be easy to write and read and will advance publicational industry because of ease of printing. However, all of the benefits they insisted are not valid today. The problems of printing syllable-based writing was solved by development of computing technology and the difficulty of writing and reading is not related to each writing rule. Moreover, if using syllable-based writing is given up, not only will the number of the possible expression of syllables be decreased but also reading sentence will be very difficult.

논문개요

이 연구는 이상적이 한글서체의 구조를 찾기 위한 배경 이론의 정립을 위한 고찰이다.
한글은 훈민정은의 창제 이래 음절단위의 모아쓰기형식을 유지해왔다. 그런데 1908년 주시경의 풀어쓰기에 대한 제안이후 몇몇 학자들이 주시경의 제안을 따르고 있다. 그들은 한글의 풀어쓰기를 실시할 경우 많은 이점이 있다고 주장해왔다. 풀어쓰기한글은 쓰기나 읽기에 쉽고, 출판 산업 발전에도 도움을 준다는 것이다. 그러나 그들의 주장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 인쇄와 관련된 문제는 컴퓨터기술의 발전으로 해결되었고, 쓰기나 읽기의 불편함은 풀어쓰기와는 관계없는 주장이다. 물론 독서의 수월성에 관한 문제 중 풀어쓰기와 관련된 부분이 있으나 이는 잘못된 판단에 근거한다. 오히려 한글의 풀어쓰기를 실시할 경우 읽기에 불편할 뿐만 아니라 표현가능한 음절의 수가 급격히 줄어들어 문자로서의 기능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온다.

1. 서론

1-1. 연구배경 및 목적

본 연구자는 이상적인 한글 활자의 구조에 대해 연구하고자 한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그동안 한글의 구조에 대한 모든 논란에 대한 고찰과 이들 주장에 대한 논리적 타당성에 대한 검토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현재 널리 사용되고 있는 모든 한글 활자는 낱글자의 구성 방법에 따라 네모틀 글자와 탈네모틀글자로 구분할 수 있다.[1] 그러나 사용빈도나 활자의 존재 여부를 감안하지 않고 서체를 구분 할 경우 풀어쓰기한글 역시 한글서체 분류의 또 다른 영역으로 분류 할 수 있다.

그동안 디자인 분야에서는 탈네모틀 글씨나 네모틀 글씨에 관련한 다양한 연구가 이루어진 반면, 풀어쓰기한글과 관련한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러나 1908년 주시경이 한글의 풀어쓰기를 주장한 이래[2] 많은 한글학자들을 중심으로 풀어쓰기한글에 대한 논의가 지속적으로 이어져 왔다.

이상적인 한글 활자구조를 찾기 위해서는 풀어쓰기한글에 대한 주장 역시 간과해서는 안 될 중요한 검토사항이라 판단하고, 이들 주장에 대한 타당성을 고찰하고자 한다.

이 연구를 위해 본 연구자는 우선 한글서체의 분류방법에 대해 고찰하고, 그동안 진행되어온 풀어쓰기한글과 관련된 선행연구를 검토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풀어쓰기한글 사용의 찬성론과 반대론의 근거를 면밀히 살펴, 각 주장의 타당성을 검토하고자 한다.

1-2. 용어의 정의

1-2-1. 모아쓰기

한글을 이용한 음의 표현 시 한 음절의 표기에 필요한 모든 쪽자를 한 덩어리로 하여 정해진 규칙에 따라 모아쓰는 형식을 말한다. 2009년 현재 널리 사용되고 있는 모든 한글 활자는 모아쓰기형식을 취하고 있다.

1-2-2. 풀어쓰기

모아쓰기와 대비되는 한글의 표기방식으로 음절과 관계없이 음의 표기에 필요한 모든 쪽자를 발음의 순서에 입각하여 한 줄로 나열하여 표기하는 방식을 말한다. 영어와 같은 라틴문자가 풀어쓰기형식을 취하고 있다.

1-2-3. 쪽자와 낱글자

쪽자와 낱글자의 정의는 서적 또는 연구에 따라 서로 사른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쪽자와 낱글자의 의미를 다음과 같이 정의·사용함으로서 잘못된 의미전달의 가능성을 제거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 '쪽자'라 함은 음을 표현하는 가장 기본단위인 음소(音素)를 표현한 글자를 말한다. 한글의 경우 각각의 자음과 모음을 말한다.

본 연구에서 '낱글자'라 함은 활자의 디자인 시 기본이 되는 제작단위를 말한다. 한글의 경우 쪽자가 모여 하나의 음절(音節)을 표현하는 글자를 말한다.

로마자의 경우 앞에서 설명한 쪽자의 낱글자의 구분이 없다.

2. 풀어쓰기한글관련 주장

2-1. 주시경의 풀어쓰기 한글

김민수에 따르면 문헌상 나타난 풀어쓰기한글에 대한 최초의 기록은 1908년(융희2년) 제출된 국문연구소의 '국문연구안'이다.[3] 이 기록에서 주시경은 한글의 풀어쓰기에 대해 언급하였는데 이를 황호성이 현대어로 풀이한 것은 다음과 같다.

> *철자법은 자음과 모음을 각각 가로쓰기하면 제일 좋을 것이오. 하지만 훈민정음 이래 쓰여온 예가 있으니 대체적으로 그것을 따르고, 다만 경우에 따라서는 각 글자를 풀어쓰기하는 것도 안 될 이유가 없다고 봅니다.*[4]

또한 이기문에 따르면 1909(융희3년) '국문연구보고서'에는 다음과 같은 주시경의 생각이 담겨있다.[5]

> *철자법은 훈민정음 예를 따라 쓰는것이 좋고, 또한 각 자음 모음을 따로 풀어쓰기하는 것 역시 좋으니 이는 섞어 사용하는것이 옳다고 봅니다.... 보다 발음의 앞뒤 관계가 명확하고 가르치기에 편하며 활자화하기 편하기 때문입니다. 한 예를 들어, 우리 나라가 맑고 곱다라 함을*

1) 안상수, 한재준, 이용제. (2003) 한글 활자꼴 보호범위와 유사성 판단 기준에 관한 연구, 특허청 과제 결과보고서, 홍익대학교 미술디자인 공학연구소, p.44

2) 풀어쓰기한글에 대한 최초의 논의는 주시경에 의해 시작 되었다는 일반적인 인식에 대해 월간 ㅎㅏㄴㄱㅡㄹㅈㅣㅇㅂㅗ(1993년 10월호)에서는 1890년 유길준의 주장이 처음이라는 주장하기도 했다. (황호성. (2004). '글자의 혁명'(1956)에 나타난 최현배의 한글 풀어쓰기론 연구, 세종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 p.7)

3) 김민수. (1984) *국어정책론 제2판*, 탑출판사, p.254

4) 황호성. (2004). '글자의 혁명'(1956)에 나타난 최현배의 한글 풀어쓰기론 연구, 세종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 p.7.

5) 이기문. (1970) 개화기의 국어 연구, 한국연구원,

ㅜㄹ/ ㄴㅏㄹㅏ ㄱㅏ ㅂㅏㄹㄱ ㄱㅗ ㄱㅗㅂ ㄷㅏ

주시경은 풀어쓰기한글에 대한 생각을 이론에 머물지 않고 다양한 시도를 통해 실제 적용하여 1913년 조선어강습원의 수료증서를 풀어쓰기한글로 제작하였고, 1914년 발행된 '아이들보이'에 풀어쓰기한글로 제작된 기사를 연재하였다. 특히 '아이들보이'에는 풀어쓰기한글을 이용한 기사가 매월 연재되었으며, 이해를 돕기 위해 모아쓰기한글로 표기하여 해당기사의 앞 페이지에 배치하였다.

(그림1) 아이들보이 뎨칠호(1914년3월)에 연재된 풀어쓰기 한글로 작성된 기사. 오른쪽위는 표지, 아래의 두페이지는 풀어쓰기한글로 표기된 기사이며, 왼쪽 위는 풀어쓰기한글로 표기된 기사를 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모아쓰기한글로 표기한 페이지.

주시경의 풀어쓰기한글에 대한 연구는 그의 제자들에 의해 본격적으로 이론이 전개되었다. 김두봉(김더 조선말본:1922), 리필수('글에대한 문답', 조선정문회, 1925), 김석곤(동아일보, 1932년 7월 20일), 김병호('한글' 제6권 제1호, 제6권 제8호, 1938), 심상설('한글' 제6권 제3호, 1938), 심일('한글' 제6권 제4호, 1938), 청풍생('한글' 제6권 제4호, 1938), 최현배(글자의 혁명, 1947, 1956) 등에 의해 본격적인 풀어쓰기 이론이 전개되었다.[6] 이들 중 김두봉과 최현배는 풀어쓰기한글의 필요성을 알리기 위한 서적을 출판할 정도로 열의를 보였다.

2-2. 김두봉의 풀어쓰기 한글

김두봉은 1922년 '김더 조선말본; 좋을글'을 출판하였는데, 이 책의 "붙임편"은 좋은 글자의 조건을 형태적 측면과 표기방법의 측면에서 언급하였다.[7]

그는 좋은 글자의 형태적 조건으로 "첫재는소리결에맞아야될것이오 둘재는획이쉽어야될것이오 샛재는꼴이곱아야될이요 넷재는슈효의알맞아야..."[8]고 주장하였으며, 표기방법 측면에서 "세로쓰는것보다가로쓰는것이... ...왼쪽에서옳은쪽으로쓰는것이... ... 소리의낱내덩이를한덩이로묶는것보다 낱남의덩이를묶는것이좋을지니라"[9]고 주장하였다. 김두봉은 그중에서도

1낱말을낱덩이로하여야할것과
2글씨(쪽자)의자리를소리나는자리대로할것과
3쓰기에쉽게하여야 할것과
4보기에쉽어야할것과
5박기에쉽어야할것과
6쓸대없는어수선을덜어야할것[10]

을 우리 글씨의 하루빨리 고쳐야할 것으로 꼽았다.

낱말을 덩이로 하여야 한다는 주장은 「김더 조선말본」이 출판되었던 당시 한글표기법상의 문제에서 비롯되었다. 단어단위의 띄어쓰기 개념이 도입되기 이전의 상황에서 음절간의 구분은 있으나 단어 간의 구분이 모호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편을 해소하고자하는 해결책이라 할 것이다.

쪽자의 자리를 소리나는 대로 해야 한다는 주장은 김두봉의 판단한 언어학적 근거이며, 이는 곧 그가 한글의 풀어쓰기 실시를 주장하는 학술적 근거이다.

쓰기에 쉽게 할 것과 보기에 쉽게 할 것의 문제는 당시 세로쓰기로 작성되던 문서를 가로쓰기로 전환해야한다는 주장의 근거이다. 그는 오른손잡이의 경우 필기 시 가로쓰기를 실시하는 것이 세로쓰기에 비해 수월하며, 안구의 운동이 좌우로 움직이는 것이 상하로 움직이는 것에 비해 편안하다는 점을 그 근거로 들었다.

6) 황호성. (2004). '글자의 혁명'(1956)에 나타난 최현배의 한글 풀어쓰기론 연구, 세종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 p.9
7) 김두봉. (1922). '김더 조선말본; 좋을글', 상해새글집, pp.붙임1-붙임91.
8) ibid, p.붙임3.
9) ibid, p.붙임6.
10) ibid, pp.붙임7-붙임10.

박기에 쉬워야 한다는 것은 인쇄의 편리성 측면에 대한 언급이다. 기존 한글의 모아쓰기 형식을 이용해 인쇄할 경우 필요한 낱글자를 최소한 수천 자가 되어야 하지만, 풀어쓰기를 실시할 경우 기본자소만을 가지고도 모든 발음의 표현이 가능해지기 때문이다.
쓸데없는 어수선을 덜어야 한다는 것은 묵음인 초성 'ㅇ'과 현재에는 사용하지 않는 아래아(ㆍ)를 제거하여 사용하자는 주장이다.

2-3. 최현배의 풀어쓰기 한글

최현배의 풀어쓰기한글관련 연구는 지금까지 전해지는 대표적인 연구 중 하나다. 그는 1937년 "가로쓰기의 이론과 실제', 1947년 '글자의 혁명', 1958년 '한글 풀어씨기의 뜻과 글자' 등을 통해 풀어쓰기한글 사용의 당위성과 글꼴에 대한 안을 제시하였다.[11]
최현배는 6가지 이유를 들어 풀어쓰기를 해야 함을 주장하였는데 우선 각 주장의 제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한글을 풀어서 가로글씨로 하면
2. 가로글은 생리적으로 씨기(書寫)가 쉽다
3. 가로글은 세로글보다 보기가 훨씬쉽다
4. 풀어쓰는 가로글씨는 박기(인쇄하기)에 유리하다
5. 가로글은 읽기에 편리하다
6. 가로글은 가장 자연스런 글이다[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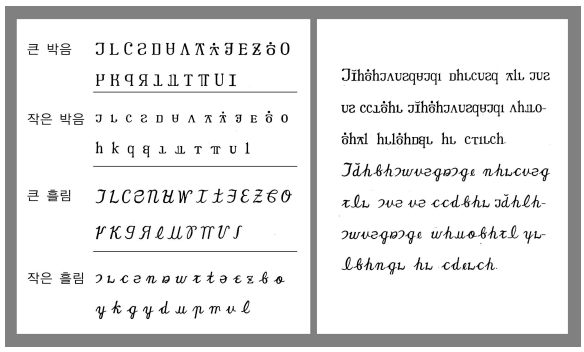
위 내용 중 2번, 3번, 6번은 가로쓰기의 타당성에 관한 주장이며, 5번은 띄어쓰기, 1번, 4번은 풀어쓰기의 타당성에 관한 주장이다.
이 주장들은 앞서 언급한 김두봉의 주장과 대부분 일치하는데, 1번은 풀어쓰기를 하면 소리 내는 순서와 동일하게 배열된다는 점, 2번은 한글을 가로쓰기 할 경우 필기가 용이하다는 점, 3번은 안구의 운동을 고려한 독서 편의성, 4번은 인쇄에 유리하다는 점, 5번은 단어별로 묶어서 사용해야 한다는 점에 대한 주장과 이유를 담고 있다. 6번은 김두봉의 주장에 새로이 더해진 풀어쓰기한글을 시행해야하는 근거이다. 최현배는 세계에서 세로쓰기를 하는 나라는 한국, 중국, 일본, 몽고, 만주어의 5개 문자 밖에 없으며 나머지 모든 문자는 가로쓰기로 표기된다는 점을 들어 한글의 세계화를 위해 가로쓰기를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13]

11) 황호성. ibid, pp.9-13
12) 최현배. (1958). '한글 풀어씨기의 뜻과 글자', 韓國評論 제4호(단기 4291년 9월호), pp.73-78
13) 최현배. ibid, p.7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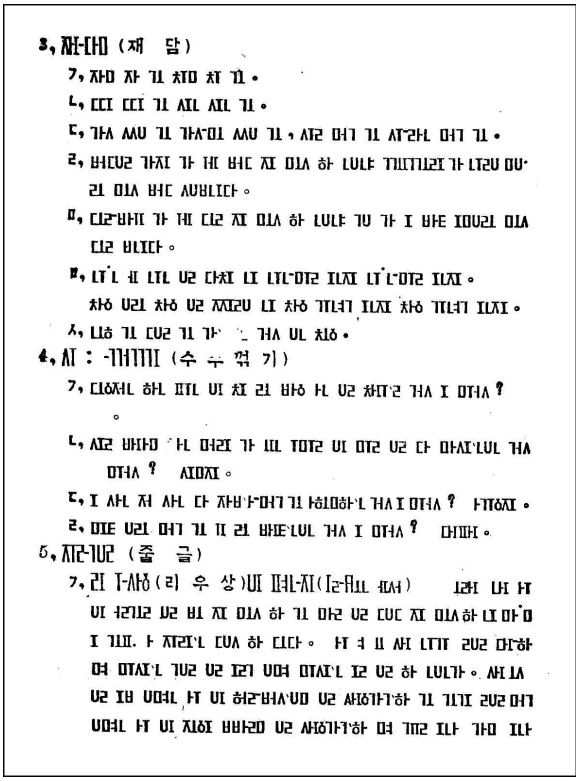
3. 풀어쓰기한글의 문제점

3-1. 한글의 정체성 측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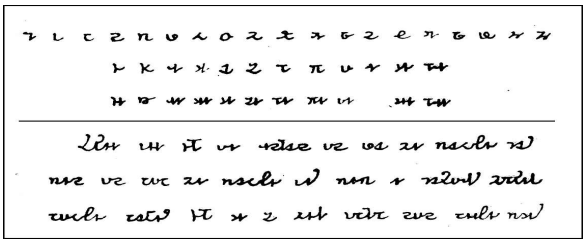
한글의 정체성을 논하기에 앞서 계승하여야 할 정체성과 비록 한국 전통의 것이라 할지라도 필요에 따라 수정 보완을 통해 발전시켜야 할 것에 대한 고찰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즉, 고도로 발전하는 현대사회에 부응하지 못하는 부분은 과감한 수정이 필요한 것이 사실이지만, 이러한 수정은 다각도의 신중한 판단을 바탕으로 하여야 한다. 선진 사회의 사례를 무비판적인 자세로 받아들임으로서 발생되는 오류는 흔히 발견된다.
한글의 풀어쓰기에 대한 논의의 시작은 일부 학자들이 서구문자를 접하면서 시작되었다 할 것이다. 풀어쓰기에 대한 논의가 처음으로 공식화된 시기인 1900년대 초는 서구열강들이 한반도 주변의 패권을 다투던 시기였다. 이러한 시대적 상황은 자연스럽게 서구의 문물을 한반도에 전파하였다. 당시에 전파된 서구의 문물은 한국인의 입장에서는 범접조차 하기 어려운 고도로 발전된 것들이었다. 풀어쓰기한글에 대한 논의의 발단은 당시의 출판환경에 선진문화에 대한 막연한 동경이 가세하여 시작된 것으로 판단된다. 풀어쓰기한글에 대한 논의 과정에서도 이러한 면이 짙게 나타난다. 특히 김두봉과 최현배가 제시한 풀어쓰기한글의 안(案)을 살펴보면 라틴문자의 특성을 비판적 판단 없이 받아들인 결과로 보인다. 이들이 제시한 두 안은 모두 대문자와 소문자로 구성되어있으며, 제시된 대문자의 사용규칙 역시 영어문장에서의 대문자 사용규칙과 매우 유사하다.
또한 그들은 필기체의 안(案)까지 제시하였는데, 이는 문자와 서체의 발달과정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상태에서 라틴문자가 가지고 있는 특징들을 그대로 차용한 결과라 할 것이다.



(그림2) 최현배의 풀어쓰기. 왼쪽은 기본 쪽자의 안이며, 오른쪽은 이를 이용해 작성한 문장



(그림3) 김두봉의 풀어쓰기에 의한 문장



(그림4) 김두봉이 제안한 풀어쓰기한글 필기체안. 위는 각 음소별 필기체의 형태이며, 아래는 이를 이용해 작성된 문장의 예이다.

3-2. 쪽자의 묶음과 문장방향

(표1) '가마귀가'를 세로쓰기할 경우 읽는 방법의 가능성에 대한 최현배의 예시

1	2	3	4	5	6	7	8
가 마 귀 가	가 마 귀 가	가 마 귀 가	가 마 귀 가	가 마 귀 가	가 마 귀 가	가 마 귀 가	가 마 귀 가

최현배는 세로쓰기로 표현된 "가마귀가"의 네 글자를 읽는 방법을 다음 표와 같이 다양함을 들어 읽기에 불편하다 주장하였다.

그러나 위의 예시는 띄어쓰기 없이 세로쓰기를 실시하는 전통적인 방식을 따랐을 때 발생하는 문제이며, 세로쓰기에 띄어쓰기를 실시할 경우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 부분에 대한 최현배의 주장이 담긴 출판물들은 그의 주장의 정확한 의도 이해에 혼란을 주고 있다. 최현배는 그의 저서 「글자의 혁명」과 「한국논평」에 실린 글을 통해 위와 같은 논리를 폈다.[14] 그러나 「글자의 혁명」은 가로쓰기 조판에 띄어쓰기가 적용되어 출판 되었으며, 「한국논평」의 경우 비록 세로쓰기로 조판되었으나 띄어쓰기가 적용되어있다.

김두봉 역시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단어를 단위로 모아쓰는 풀어쓰기 방식이 쪽자를 단위로 묶는 모아쓰기방식보다 우수하다는 주장한바 있다.[15] 김두봉은 단어를 단위로 하여 띄어쓰기를 적용하는 사례는 라틴문자와 같이 음소를 한 줄로 표기하는 형식 이외에는 접할 기회가 없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써나가는 가로쓰기[16]는 오른손잡이가 대다수를 이루는 상황에서 필기에 도움을 줄뿐만 아니라 독서능률도 향상시킨다는 점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그러나 이는 풀어쓰기나 모아쓰기의 문제와 상관관계가 없는 문제이다.

3-3. 문자 활용의 기술적 측면

한글의 풀어쓰기 실시를 주장하게 된 가장 직접적이고 현실적인 계기는 타자기와 텔레타이프(teletype)의 발명 등에 따른 영향으로 보인다. 물론 한글의 풀어쓰기가 새로운 활자제작의 편의성에 따른 출판환경의 개선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하겠으나, 이러한 문제는 모아쓰기를 유지한 상태에서 인력과 공간의 투자를 통해 해결할 수 있는 문제였다.

1868년 미국에서 처음으로 실용적인 타자기가 개발되었다.[17] 주시경이 풀어쓰기에 대한 최초의 언급이 문헌에 등장한지 6년 후인 1914년에는 재미교포 이원익이 한국 최초의 한글 타자기를 만들었다. 이원익의 타자기는 세로쓰기형식을 취하고 있는데, 타이핑시는 반시계방향으로 90° 회전된 상태로 타이핑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18]

14) 최현배. (1956). 글자의 혁명, 정음사, pp.111-115; 최현배. (1958). '한글 풀어씨기의 뜻과 글자', 韓國評論 제4호(단기4291년 9월호), pp.76-78.

15) 김두봉. ibid, p.붙임7.

16) 최현배의 저서에서 가로쓰기는 풀어쓰기를 의미하기도 한다. 여기에서의 가로쓰기는 보편적 의미의 가로쓰기를 의미함.

17) 야후백과사전 http://kr.dictionary.search.yahoo.com/

18) 김진평, 활자체로 보는 한글꼴의 역사, 산업디자인 112, 1990년 10

제한된 수의 자판을 가지고 있는 타자기를 이용해 한글 문서를 작성하는데 있어서 한글의 모아쓰기 형식은 큰 걸림돌이 되었을 것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시된 해법이 바로 한글의 풀어쓰기와 공병우, 조영제[19] 등이 제안한 네모틀을 벗어난 한글서체라 하겠다.

텔레타이프의 등장은 풀어쓰기한글의 필요성을 강화시키는 역할을 한 것으로 판단된다. 텔레타이프는 발신자가 통신시설을 이용해 타자한 내용이 원거리에 있는 수신자의 프린터를 통해 인자(印字)되는 기기이다. 실제로 텔레타이프에서는 풀어쓰기한글이 사용되기도 하였다.[20]

그러나 2000년을 전후하여 국내의 거의 모든 출판물은 컴퓨터조판을 이용한 조판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개인용 컴퓨터와 고성능 프린터의 확산, 컴퓨터통신의 발달로 한글의 모아쓰기형식으로 인한 기술적 문제들은 사라진 상황이라 하겠다.

3-4. 문자로서의 기능적 측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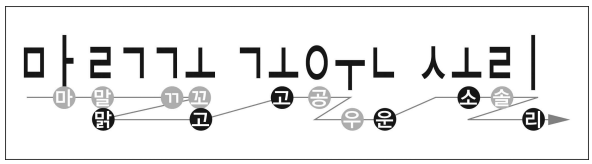
마지막으로 풀어쓰기한글은 문자를 통한 정보전달효율이나 소리의 표현가능성 등에 매우 큰 문제가 있다. 풀어쓰기의 모든 문제점은 음절구분상의 문제에서 비롯된다. 한글의 풀어쓰기 방법에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초성에 사용되는 이응(ㅇ)을 그대로 표기하는 방법과 그렇지 않은 방법이다.

대부분의 풀어쓰기한글 안을 보면 초성에 사용되는 이응을 제거하고 표기하는 방법을 택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방법을 채택할 경우 한글이 표현 가능한 소리의 수는 크게 감소하게 되며, 음절과 음절의 구분이 모호해져 독서에 큰 장애요소가 된다.

초성용 이응이 제거되어 풀어쓰기가 실시될 경우에 발생하는 대표적인 폐단은 의미가 부여된 최소한의 단위인 단어의 표기 및 독서에도 문제가 발생된다. 예를 들어 'ㅏㄹㅡㅁ'은 '아름(두 팔을 벌려 안은 둘레)'이라 읽을 수도 '알음(알다)'으로 읽을 수도 있게 된다. 결국 이응을 제거한 풀어쓰기의 실행은 구분하여 표현 가능한 단어의 수를 대폭 감소시키는 결과를 초래해 언어생활발전에 저해요소가 된다. 물론 일반 단어들의 경우 문맥을 통해 그 의미를 파악할 수 있다 할지라도 사람의 이름과 같은 고유명사의 표현에는 심각한 문제가 발생된다. 예를 들어 'ㅣㅁㅣㄴㅅㅜ'의 경우 '이민수'인지 '임인수'인지의 구분이 전혀 불가능해진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음절과 음절사이를 띄어쓰기 하여 사용하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지만, 이 경우 음절과 음절사이의 구분을 위한 띄어쓰기와 단어와 단어사이의 구분을 위한 띄어쓰기의 구분에 문제가 생기게 된다. 물론 음절사이의 띄어쓰기와 단어사이의 띄어쓰기 간격을 달리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겠으나, 현실적으로 각 경우의 띄어쓰기 간격이 시각적으로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 이상 독서의 효율은 크게 떨어질 것이 자명한 일이다. 결국 풀어쓰기를 하더라도 초성의 '이응'을 제거해서는 안 된다는 결론이 나온다.

초성의 이응이 제거되지 않은 상태로 풀어쓰기를 실시한 경우 역시 독서의 효율에 큰 문제를 갖고 있다. 모든 문자는 궁극적으로 읽혀질 것을 전제로 사용된다. 또한 읽혀지는 모든 문자는 음절단위로 읽혀지기 마련이다. 그런데 풀어쓰기로 작성된 문장은 음절과 음절사이가 명확하지 않아 독서행위자가 각 음절의 시작과 끝을 구분해가며 읽어야 하는 불편함이 따른다(그림5). 결국 이는 독서의 효율성을 크게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작용하게 된다.



(그림5) 풀어쓰기 문장의 독서흐름도

4. 결론

한글의 풀어쓰기에 대한 논란은 한글이란 이름을 처음으로 사용한 주시경의 언급이후 100년간 지속해 왔다. 주시경이 사망한 이후에는 그의 제자들을 중심으로 이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져 왔다.

그들은 인쇄 기술적 문제, 세로쓰기의 문제, 띄어쓰기의 문제, 독서의 편리성의 문제 등을 들어 한글이 풀어쓰기를 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세로쓰기의 문제와 띄어쓰기의 문제는 풀어쓰기 형식과는 상관관계가 없는 별개의 문제이다.

인쇄 기술적 문제의 경우 타자기나 텔레타이프의 문제와 출판 환경적 문제로 나누어 생각해 볼 수 있다. 타자기나 텔레타이프의 경우 컴퓨터의 발달과 보급, IT 기술의 급속한 발달로 더 이상 문제가 될 수 없다. 다만 출판 환경적 문제 중 한글의 모아쓰는 형식으로 인해 새로운 활자의 개발에 불편함은 있으나 한글의 풀어쓰기 전환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천문학적인 직·간접적 경비와 사회적 혼란을 감안하면 크게 문제될 것이 없는 사항이다.

한글의 풀어쓰기를 주장하는 모든 학자들이 독서 수월성을 주장했지만 이 역시 독서에 영향을 끼치는 다양한 요

월, pp.23-24.

19) 조영제, 한글 기계화(타자기)를 위한 구조의 연구, 조형 창간호, 서울대학교 출판부, 1976, pp.41-43.

20) 최현배. (1958). ibid, p.73

소들을 논리적 근거를 바탕으로 생각하지 않은 오류에 의한 판단임을 알 수 있었다.

21세기에 들어선 오늘날에도 간혹 풀어쓰기한글의 우수성을 논하는 연구자가 간혹 나타나고 있다. 이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풀어쓰기한글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기는 하나, 이에 대한 논리적인 반론 보다는 "구두에 발을 맞출 수는 없다"는 식의 감성적 판단에 근거한 주장뿐이어서 상대적으로 논리적 근거를 가지고 있는 풀어쓰기한글에 관한 논란을 불식시키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이제 풀어쓰기한글에 대해 2009년 현재까지 진행되어온 주장 외에 새로운 장점 요인이 발견 전까지는 한글의 풀어쓰기 주장은 무의미한 것으로 판단된다.

참고문헌

- 김두봉. '김더 조선말본; 좋을글', 상해새글집. 1922.
- 김민수. 국어정책론 제2판, 탑출판사. 1984.
- 김진평, 활자체로 보는 한글꼴의 역사, 산업디자인 112, 1990년 10월.
- 안상수, 한재준, 이용제. 한글 활자꼴 보호범위와 유사성 판단기준에 관한 연구, 특허청 과제 결과보고서, 홍익대학교 미술디자인공학연구소. 2003.
- 이기문. 개화기의 국어 연구, 한국연구원. 1970.
- 조영제, 한글 기계화(타자기)를 위한 구조의 연구, 조형 창간호, 서울대학교 출판부. 1976.
- 최현배. 글자의 혁명, 정음사. 1956.
- 최현배. '한글 풀어씨기의 뜻과 글자', 韓國評論 제4호 (단기4291년 9월호). 1958.
- 황호성. '글자의 혁명'(1956)에 나타난 최현배의 한글 풀어쓰기론 연구, 세종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 2004.
- 야후백과사전 http://kr.dictionary.search.yahoo.com/